트와이스 영어 싱글 '더 필즈', 빌보드 '핫100' 진입

'걸그룹' 트와이스가 첫 영어 싱글 'The Feels' (더 필즈)로 미국 빌보드 핫 100 83위, 영국 오피셜 차트 80위에 동시 진입했다. 첫 영어 싱글로 이 차트서 커리어 첫 진입을 이뤄 더욱 의미를 더한다.

▲ 트와이스. 사진=JYP엔터테인먼트

미국 빌보드가 12일 공식 SNS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, 트와이스가 10월 1일 전 세계 동시 발표한 첫 영어 싱글 'The Feels' 는 갱신 예정인 최신 '핫 100' 차트에 83위로 등장했다. 이로써 트와이스는 빌보드 메인 차트 '핫 100' 에 최초 입성함과 동시에 2021년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 첫 K팝 걸그룹으로 이름을 빛냈다.

특히 세계 3대 음악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의 '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' 에도 80위로 첫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. 이뿐만 아니라 빌보드 '디지털 송 세일즈' 5위를 비롯해 '빌보드 글로벌(미국 제외)' 와 '빌보드 글로벌 200' 차트에서는 각 10위와 12위에 올라 자체 최고 기록을 썼다. 애플뮤직 글로벌 일간 차트 17위, 유튜브 글로벌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 1위 등 여러 해외 차트에서 호성적을 달성하고 자체 기록을 경신해 이목을 끌었다.

트와이스가 데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영어 싱글 'The Feels' 는 첫눈에 반했을 때 설레고 행복한 감정을 담은 가사와 그루브한 베이스 사운드, 디스코 신스 비트 등으로 이루어진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특징이다.

BTS 또 신기록…빌보드 '디지털 송 세일즈' 역대 최다 1위 경신

▲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. 사진=BTS 트위터

방탄소년단(BTS)과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합작한 곡 '마이 유니버스' (My Universe)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전주보다 11위 내려간 12위를 기록했다.

빌보드는 11일 '마이 유니버스' 가 메인 싱글 차트 '핫 100' 에서 1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
'마이 유니버스' 는 전주에 힙합 신성 더 키드 라로이와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'스테이' 를 누르고 첫 주 1위로 진입한 바 있다. '다이너마이트' , '버터' , '퍼미션 투 댄스' , '라이프 고스 온' , '새비지 러브' 에 이어 여섯 번째 핫 100 1위 곡이다.

'마이 유니버스' 는 두 수퍼스타 팀의 협업으로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됐다.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영어와 한국어로 부른 이 트랙은 두 팀이 직접 작사·작곡했다. 스웨덴 출신 팝 거장 맥스 마틴(Max Martin)이 프로듀싱했다.

핫 100은 음원 다운로드 및 실물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,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합산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순위를 도출한다.

한편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세부 차트 '디지털 송 세일즈'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해 역사상 이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(총 45주)를 차지한 아티스트라는 신기록을 세웠다.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결집력과 규모를 자랑하는 팬덤 '아미' 의 저력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.

직전주까지는 총 44주 1위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동률이었다.

'007 노 타임 투 다이', 개봉 첫 주 매출 1위

▲ 영화 '007 노 타임 투 다이'. 사진=유니버설 픽쳐스

지난 8일 개봉한 영화 007시리즈 '노 타임 투 다이' 가 개봉 첫 주 티켓 매출 1위를 달성했다(관련기사 57쪽 '007 No Time To Die').

영화 전문 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10일 '007 노 타임 투 다이' 가 글로벌 박스오피스 3억1천33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. 이 매체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호주 등의 시장에서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, 전 세계적으로 순항 중이라고 분석했다.

'노 타임 투 다이' 는 미국과 캐나다 4천407개 상영관에서 지난 8일 개봉했고 마블 코믹스 캐릭터를 내세운 영화 '베놈 2:렛 데어 비 카니즈' 를 제치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. 북미 개봉 첫 주 사흘간 티켓 매출 추정치는 5천600만 달러다.

할리우드 리포터는 '노 타임 투 다이' 가 북미 관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고 해외 극장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에 힘입어 장기 흥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.

'노 타임 투 다이' 는 제6대 제임스 본드인 영국 출신의 스타 배우 대니얼 크레이그가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007시리즈 25번째 작품이다. 007시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계 미국인인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. 대니얼 크레이그가 촬영 중 부상을 당해 촬영이 지연되었고, 촬영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크게 다칠 뻔 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